

退溪(퇴계)

陶山六曲(도산육곡)

李滉 字景浩 號退溪. 中宗朝登第 選湖堂 典文衡 官至贊成○○. 東方之宗 謚文純.

(이황자경호호퇴계. 중종조등제 선호당 전문형 관지찬성○○. 동방지종 시문순.)

言志

二七. 이런들엇더^ㄴ며저런들엇더^ㄴ료/草野愚生(초야우생)이이러타엇더^ㄴ료/ᄃᆞᆫ물며泉石膏肓(천석고황)을고쳐므슴^ㄴ료.

註. ①草野愚生(초야우생)- 깊은 산골에 묻혀 사는 사람.

②泉石膏肓(천석고황)- 천석은 아름다운 자연, 고황은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 즉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어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시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공명. 시비를 떠나 살아가는 상황)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랴?

解. 전 6곡의 서시에 해당하는 노래로, 명리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는 자연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二八. 煙霞(연하)로집을삼고風月(풍월)로벗을사마/太平聖代(태평성대)에病(병)으로늘거가뇌/이중에브라는일은허물이나업고자.

註. 煙霞(연하)- 안개와 아지랑이, 여기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취.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스런 시대에 하는 일없이 노병으로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 자연과 벗하며 잘 지내는 중에 바라는 바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나 없었으면 싶다.

解.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병, 곧 천석고황(天石膏肓)이 되었음을 말함과 아울러 도덕 군자로서 몸에 허물이 없기를 걱정한 노래다.

二九. 淳風(순풍)이 죽다 訢니 眞實(진실)로 거죽말이/人性(인성)이 어지다 訢니 眞實(진실)을
흔말이/天下(천하)에 許多英才(허다영재)를 소저말습홀가.

- 註. ① 淳風(순풍)-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
② 거죽말이- 거짓말이다.
③ 이어지다 訢니- 어질다 하니
④ 許多英才(허다영재)- 많은 슬기로운 사람.
⑤ 소저말습홀가-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후한 풍속이 줄어서 없어지고, 사람의 성품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착한 성품으로 순후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많은
슬기로운 사람을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解.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입각하여 인성의 어짐과 순후한 풍습을 강조함
과 아울러 허다영재(許多英才)들에게 성선설이 옳음을 주장한 내용이다.

三〇. 幽蘭(유란)이 在谷(재곡) 訢니 自然(자연)이 듯디 玆회/白雲(백운)이 在山(재산) 訢니 自
然(자연)이 보디 玆해/이 중에 彼美一人(피미일인)을 더옥 닳디 못 訢애.

- 註. ① 幽蘭(유란)- 그윽한 향기를 뿜는 난초.
② 在谷(재곡)- 산골짜기에 피었으니
③ 自然(자연)이 듯디 玆회- 자연히 듣기 좋다.
④ 在山(재산)- 산봉우리에 걸렸으니
⑤ 自然(자연)이 보디 玆해- 자연히 보기 좋다.
⑥ 彼美一人(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미인, 저 아름다운 고운 분.
⑦ 닳디 못 訢애- 잊을 수가 없다.

그윽한 난초가 산골짜기에 피어있으니 그 냄새가 자연히 맡기 좋구나.

흰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있으니 자연히 보기 좋구나.

이렇게 속세를 잊고 아름다운 풍취 속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임금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解. 벼슬을 떠나 대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임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연군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초장의 '듯디玆회(듣는 게 좋구나)'
는 난초 향기에 대하여 논리상 모순의 표현이지만, 한시의 번역 표현에서 비롯
된 까닭이다. 마지막 종장의 '피미일인'은 고운 분, 즉 임금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신의 학문을 있게 해주신 맹자나 공자 등의 성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三一. 山前(산전)에 有臺(유대)하고 臺下(대하)에 有水(유수)-로다/매 만흔 굴며기논오명가
명 亨거든/엇더라 皎皎白駒(교교백구)논 멀리 막음 亨는고.

註. ①有臺(유대)- 대가 있음.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천운대(天雲臺).

여기서는 낚시터를 가리킴.

②매 만흔- 매지은, 무리 지은

③皎皎白駒(교교백구)- 회고도 흰 갈매기, 어진사람이 라는 망아지.

산 앞에는 높은 낚시터가 있고, 대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구나.

무리 지은 갈매기들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해서 저 어진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갈 마음만 갖는고.

解. 낚시터에 물과 갈매기를 벗하는 생활을 찬미하며, 속세에 연연해하는 세속인 들
을 나무라고 있는 내용이다. 종장의 다른 곳은 권력이 있는 궁을 말하는 것이며
‘교교백구’는 현자를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교교백구
가 멀리 마음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멀리 있음을 나타낸다.

三二 春風(춘풍)에 花滿山(화만산)하고 秋夜(추야)에 月滿臺(월만대)라/四時佳興(사시가
흥)이 사람과 한가지 라/亨 물며 魚躍鳶飛雲影天光(어약연비운영천광)이야어닉
그지이시리.

註. ①四時佳興(사시가흥)- 계절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흥취.

②魚躍鳶飛(어약연비)- 고기는 뛰고 솔개는 날된다는 말.

시경(詩經)위 한 대목. 천지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말함

③雲影天光(운영천광)- 구름이 그림자와 찬란한 태양, 만물의 천성을 얻
어 조화를 이룬 상태.

봄바람이 불어 산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에는 밝은 달이 대에 가득하다.

춘하추동의 아름다운 흥취는 사람의 흥겨움과 한가지로구나.

더군다나 물 속에는 고기가 뛰고, 하늘에는 소리개가 날며, 아름다운 구름은 그
림자를 짓고, 찬란한 태양은 그 빛을 온 누리에 떨침에 이러한 대 자연 속의 조
화가 어느 한 가지인들 끝이 있겠는가?

解. 꽃 피는 봄과, 달이 뜨는 달이 뜨는 저녁의 경치, 물 속에 노는 고기 떼, 하늘의
소리개, 구름이 떠있고 해가 비치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연이다.

其

二

三三. 天雲臺(천운대)도라드러玩樂齋蕭灑(완락재소쇄)호되/萬卷生涯(만권생애)로
樂事(낙사)-無窮(무궁)호애라/이중에往來風流(왕래풍류)를닐러므슴홀고.

- 註. ①天雲臺(천운대)- 도산서원(陶山書院) 근처에 있는 경치 좋은 곳
②도산십팔절(陶山十八絶)중의 하나,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의 약칭
③玩樂齋(완락재)- 이황이 도산에서 공부하던 서재의 이름
④蕭灑(소쇄)- 기운이 맑고 깨끗함
⑤萬卷生涯(만권생애)- 많은 책을 읽으며 학문하는 생활
⑥往來風流(왕래풍류)- 왔다 갔다 하는 풍류, 산책하는 멋

천운대를 돌아 들어간 완락재는 가운이 맑고 깨끗한 곳인데
거기서 많은 책에 묻혀 사는 생활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런 중에서 때때로 바깥을 거니는 흥취를 새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解. 책을 읽는 즐거움과 틈틈이 생기는 여가를 이용해 산책하는 여유 있는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三四. 雷霆(뇌정)이破山(파산)호여도聾者(농자)는못듯느니/白日(백일)이中天(중천)
하야도瞽者(고자)는못보느니/우리는耳目聰明男子(이목총명남자)로聾瞽(농고)又
지마로리.

- 註. ①雷霆(뇌정)- 우레 소리.
②破山(파산)- 산을 깨뜨릴 만큼 큰 소리.
③聾者(농자)- 귀머거리.
④白日(백일)- 밝은 해.
⑤瞽者(고자)- 봉사, 장님.

우레 소리가 산을 깨뜨릴 듯이 심하게 나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고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솟아도 눈 먼 사람(소경)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解. 학문의 중요성을 노래한 것으로,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귀먹고 눈먼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문 수

양에 힘쓰자는 것이다.

- 三五. 古人(고인)도날못보고나도古人(고인)못봐/古人(고인)을못봐도너돈길알피잇너/너돈길알피잇거든아니너고엇절고.

註. 너던 길- 가던 길, 행하던 도리.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그 분들을 못 보네.

하지만 그 분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를 따르지 않고 어찌할 것인가?

解. 옛 성현들이 행하던 도리를 이어 받아 우리 역시 실천해야 함을 주장한 내용으로, 연쇄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살리고 있다.

- 三六. 當時(당시)에너돈길홀멧히를버려두고/어되가든니다가이제야도라온고/이제야도라오나니넌의맛음마로리.

註. 년되- 다른 곳에

그 때 뜻을 세우고 학문과 수양에 힘쓰던 길을 몇 해씩이나 버려 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것인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시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던 학문수양에 힘써라.

解. 젊었을 때 품었던 학문에 대한 열의를 소홀히 하고 벼슬길에 올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이제라도 학문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 내용이다. 학문 수양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나타나 있다.

- 三七. 靑山(청산)은엇제호여萬古(만고)에푸르르며/流水(유수)는엇제하여晝夜(주야)에긋지아니논고/우리도그치지마라萬古常靑(만고상청)호리라.

註. ①엇제호여- 어찌하여

②萬古(만고)- 오랜 세월.

③萬古常靑(만고상청)-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푸름.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것인가?

우리도 그 것을 본받아 오랫동안 계속해서 푸르게 살리라

解.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의 영원 불변성을 소재로 하여 인생 무상을 먼저 극복하고, 자연을 닮아 변치 않는 지조와 인품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교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다. 허무와 회의를 빠진 삶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문 수양을 꾸준히 그침 없이 나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고상청’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보자는 내용이다. 학문 수양에의 변함없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三八. 愚夫(우부)도알며헛거니와아니쉬운가/聖人(성인)도못다헛시니와아니어려운가/ 쉽거나어렵거나중에늙는줄을몰래라.

註. 愚夫(우부)- 어리석은 사람
기- 그 것이, 여기서는 학문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서 행하니 얼마나 쉬운가?
훌륭한 성인들도 다하지 못하니 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는 생활 가운데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解.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은이의 대 학자다운 풍모를 엿보게 하는 노래이다. 학문이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쉬운 것인 동시에 무한히 심오하여 아무리 연구하여도 끝이 없는 것이기도 하니, 그저 꾸준히 할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학문의 수양이 쉽든 어렵든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에는, 몰입하고 있는 자신이 세월이 흘러 늙어 가는 것 또한 모를 정도라고 하면서 학문 수양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문에 임하는 이황(李滉)의 정신 자세를 엿볼 수 있다.